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sup>12</sup>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sup>13</sup>밝은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sup>14</sup>콘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sup>15</sup>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sup>16</sup>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눅6:12-16)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주님의 비움의 상태라고 하고, 인성과 신성의 합일 그 자체를 주님의 영화의 상태라고 부른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 두 상태 안에 계셨다. 즉 비움의 상태와 영화의 상태 가운데 계신 것이다. 비움의 상태, 즉 겸비의 상태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

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아버지께 돌렸다. 그리고 영화의 상태에서는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TCR.104)

※ TCR(*True Christian Religion*, 참된 기독교) 위 104번 글에 대한 Ager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 The progress towards union was his state of exinanition [emptying himself], and the union itself is his state of glorification. It is acknowledged in the church that when the Lord was in the world he was in two states, called the state of exinanition and the state of glorification... This same state was his state of humiliation before the Father; for in it he prayed to the Father; and he says that he does the Father's will, and ascribes to the Father all that he did and said... Moreover, except for this state he could not have been crucified. But the state of*

눅6:12-16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glorification is also the state of union. He was in that state when he was transfigured before his three disciples, and also when he wrought miracles,*

이는 큰 주제인 ‘구주 되신 주님’ (The Lord the Redeemer)에 관한 작은 여러 주제 중 여덟 번째인 ‘주님의 두 상태, 겸비(*exinanition*)와 영화(*glorification*)’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식이 높거나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성질이 몹시 급했고요, 어떤 이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이들을 제자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기록이나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전교(傳敎, 전도)하는 과정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두 가지 영적 상태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겸손(*exinanition, emptying himself*)의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영화(*glorification*)의 상태입니다. 겸손 상태란, 주님의 인성과 당신 안에 계시는 여호와와의 신성이 하나로 결합하기 전 상태입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도 마치 인간이 거듭나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성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룩한 인성으로 갈아입으시는 일이었고, 거룩한 인성과 당신 안에 계신 신성을 하나로 결합시키시는 일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의 상태가 주님의 겸손의 상태입니다. 왜 겸손의 상태라고 하느냐면, 그 상태에서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여호와와 신성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성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성을 버리실 수 없었고요, 여호와라는 신성과 하나 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하나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영화의 상태입니다. 영화의 상태는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 두 가지 상태를 왕래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주님이 겸손 상태에 계신 것이며, 그 상태에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지옥과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밤의 속뜻은 시험이고요,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은 겸손 상태에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성은 신성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성과 손을 잡아야

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진리만 가지고는 거둬낼 수 없고, 진리와 선이 하나가 되어야만 거둬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와 신성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어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이루어 내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옥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주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산의 속뜻은 인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지옥과의 싸움에서 또 한번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

눅6:12-16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를 나타냅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제자들뿐입니다. 주님은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을까요?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자아를 믿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전적으로 따르듯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중에 열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열두 명만 사도로 택하신 까닭이 뭘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열둘(12)이란 수(數)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의 비밀 3268번 글에 보면 열둘, 곧 숫자 12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는 모

든 종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믿음의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두 명의 사도는 주님의 열두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들이면 모두 주님의 사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모든 신앙인이 각자의 믿음의 특성에 따라 사도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사도였고요, 신약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모든 진실한 신앙인들이 사도입니다. 어떤 분은 신약 시대 사도는 목회자가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사도의 소양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목회자처럼 직접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도 있고요, 진리를 삶으로 실천, 진리가 스스로 증거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도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함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열두 제자를 사도로 택하신 이유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입니다.

다음 14절에서 16절까지에는 주님이 택하신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님의 사도들의 다양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믿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믿음들을 사도들의 이름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sup>14</sup>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sup>15</sup>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sup>16</sup>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본문에서 첫 번째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속뜻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가지고는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시몬은 속뜻으로 ‘**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순종하**

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신앙인들에게 순종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두 번째 사도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말씀에서 형의 속뜻은 ‘**내적인 것**’(internal), 동생은 ‘**외적인 것**’(external)입니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는 내적 순종을, 동생인 안드레는 ‘**외적 순종**’을 의미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순종은 서로 어떻게 다른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의 속뜻인 내적 의미를 잘 지키는 것은 내적인 순종, 그런가 하면 십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잘 지키는 것은 외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은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겉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깊이도 다릅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도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애**’(仁愛, charity)를 뜻합니다. 그리고

눅6:12-16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요한은 ‘인애의 삶’을 뜻합니다. 새 교회에서는 믿음의 본질은 인애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으로 표상되는 인애는 순종과 더불어 가장 소중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편애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표상하는 인애와 순종의 덕목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의 믿음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14:7)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합니다. 빌립은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으로 표상되는 믿음은 교리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믿음,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도 택하셔서 사도로 키우십니다.

여섯 번째 사도는 빌립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된 바돌로매입니다. 바돌로매는 나다니엘이라고도 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나옵니다. 바돌로매는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돌로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천국의 빛이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 빛을 통해 진리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돌로매가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돌로매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돌로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 진리를 통찰하는 믿음’입니다.

일곱 번째 사도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속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레위에 대해서는 성문서에 설명이 있습니다. 레위의 속뜻은 사랑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영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위는 속뜻으로 ‘성직’(聖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태로 표상되는 믿음은 목회자의 소양과 관련이 있는 믿음으로 생각됩니다. 목회자의 소양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인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서는 마태에게 네 권의 복음서 중 한 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여덟 번째 사도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의 손 못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 주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어 봐야만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감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진리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향한 내면의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부터 빛이 흘러 들어옵니다. 조금 전 소개한 바돌로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아니라 천국 빛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그런 도마의 믿음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눅6:12-16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와 같은 감각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직접 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도마의 믿음 역시 소중한 귀한 믿음입니다.

아홉 번째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속뜻은 앞에서 인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앞에 나오는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입니다. 앞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여기서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입니다. 같은 인애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속뜻으로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모든 진리의 바탕에 있는 선’**을 뜻합니다. 모든 진정한 진리의 바탕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진리가 행동이라면 선은 내면의 동기 또는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진리와 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앞서는 선은 아버지이고요, 진리는 아들입니다.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모두 인애와 관련된 믿음이지만, 그 바탕에 있는 선의 특성이 다릅니다. 선의 특성이 다르면 진리의 특성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이웃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면 사랑의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로 표상되는 믿음은 모두 인애의 믿음이지만, 내적으로는 서로 다른 믿음입니다.

열 번째 주님의 사도는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앞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순종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몬도 순종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말씀에는 전자의 시몬과 후자의 시몬이 똑같은 순종의 믿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후자의 시몬의 다른 이름은 셀롯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셀롯이란 무슨 뜻일까요? 셀롯은 영어로는 ‘zeal’, 곧 ‘열정’(熱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은 그냥 순종적인 믿음이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아니라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비진리를 보면 쉽게 분노하고, 진리를 전할 때는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촛불이나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믿음,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믿음이 바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은 자칫 잘못하면 자아의 열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사도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라는 사실을 통해 유다가 어떤 믿음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속뜻은 인애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인애, 또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사도는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입니다. 가

롯 유다는 주님을 배신함으로 해서 스스로 사도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가롯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배신하는 그런 거짓 믿음입니다. 주님은 왜 가롯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사도로 택하셨을까요? 주님이 배신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스스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칫 방심하면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에서 주님은 비유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sup>24</sup>...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sup>25</sup>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교회가 밭이라면 그곳에는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훼방하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까닭은 가롯 유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유다를 이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스스

눅6:12-16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로 그런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런 것처럼 가라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스스로는 자기 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때로는 교회가 자정(自淨), 정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의 세력이 퍼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의 곡식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 중에서 열둘을 택해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사도 열둘을 세우셨다고 하면 보통 주님의 열두 제자를 연상하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열두 사도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실한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둘이라는 의미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 또는 모든 종류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라고 사도입니다. 주님의 사

도가 하는 일은 각자의 믿음의 특성에 따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라 하셨다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진실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같이 진리의 꽃이 피고 진리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의 열매들이 스스로를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속뜻을 통해 살펴본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교리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은 순종과 인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순종과 인애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들 가운데는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다’

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이에 지옥의 영들이 그의 마음에 가라지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자라서 그를 주님을 파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섬기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두 나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건강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13:15)

아멘

원본

2018-02-18(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16(D2)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